

북한이탈여성의 문화적응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 개인적 측면을 중심으로*

최희[†]·김영순[‡]

인하대학교·인하대학교

이 연구는 남북 사회통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 이주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공간적 이주로 이질화된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협상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여성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자아실현을 위한 삶의 도전으로서 자기가치 부여와 가치절하 평가에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욕구로 나타났다. 경력단절로 불안함을 보이지만 자기가치부여로 심리적 탄력성을 회복한다. 둘째는 북한 이탈여성들이 추구하는 아젠다는 귀속의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응을 통해 거리두기와 연대하기를 하며 구성 집단의 목표와 가치를 내재화하는 심리과정을 거친 의식구조가 존재하지만 이 또한 자기 관점에서 출발하는 변화이다. 셋째는 생애경험을 통해 자기부정과 자아회복, 그리고 독립된 개체로의 인식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공간적 변화와 함께 과거의 자신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무의식에서 '나'를 발견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생활세계를 통해 북한 사회 변화를 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주제어: 북한이탈여성, 정체성, 정체성 협상, 개인적 측면, 문화적응

* 이 논문은 최희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 정리한 것임

† 주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I. 서론

1990년대부터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의 증가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주사회로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이주하는 초국적 이주뿐만 아니라 이념의 경계를 넘어 이주하는 분단된 사회의 배경을 지닌 북한이탈주민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은 해마다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통일부, 2019.12월) 북한은 여성이 이주사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가족부양의 주체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되면서 가부장적 억압 속에 살아왔던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북한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국내로 유입되는 북한이탈 여성의 이주 유형을 선택적 이주와 필연적 이주로 나누어 보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선택적 이주라는 속성과 정치적, 경제적 위협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한 필연적 이주라는 속성이 있다. 선택적 이주보다 필연적 이주의 경우 가족단위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정치권력의 탄압이나, 경제 빈곤 탈출이라고 보는 생계형 이주는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와 여성들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국내로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질화된 사회·문화현상은 이들의 사회적응에 또 다른 갈등문제가 되고 있다.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했던 남북한은 분단 이후 두 개의 정치체제에서 이질화된 사회·문화현상으로 북한이탈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결혼이주민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남겨진 부모와 형제, 친척까지 포함하여 '가족'이라는 범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선택에서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결혼이주민의 사회부적응 문제와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사회적 관계, 공동체의 집단적인 삶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문화적응에서 동화나 통합으로 나타나며(김윤나, 주경필, 2017), 결혼이주민의 경우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며 문화적응에서 분리와 주변화의 경향을 보인다(김현실, 2012).

북한이탈여성의 문화적응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보면 첫째, 문화이질감에 관한 연구로서 동족이지만 이질화 된 집단으로 문화적응에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였으며(심양섭, 2016; 김윤나, 주경필, 2017), 둘째, 가족생활에 관한 연구로서 가족환경의 변화와 갈등을 다루었고(홍승아, 2013; 임순희, 2006; 조영아, 전우택, 2005 등), 셋째, 자녀양육과 교육에 관한 연구로서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과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출생한 자녀의 정체성 문제점을

다루며(한미라, 2015; 장정은, 2015; 최희, 김영순 외, 2016; 최희, 강현민, 2016), 넷째, 북한출신이면서 이주한 여성으로 중첩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관한 연구로 북한사회에 대한 배타적인 사회 환경을 분석하였다(박재인, 2015; 이금순, 2006, 최정호, 최희, 2017 등). 그러나 사회갈등과 정체성 관한 연구는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정체성 협상에 관한 연구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북한이탈여성의 개인적 측면에서 다른 정체성 협상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현재 북한의 시장경제 변화의 중심에는 북한여성들이 있다. 국가 경제시스템이 멈춰서면서 개인을 중심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2002년 북한정권이 '사회주의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내세우며 시장경제를 띄우고 있는데 이 또한 북한여성이 주축이 되어 농민시장이 경제시장으로 되었다(정창현, 2005). 또한 북한을 이탈하는 여성들의 증가는 북한의 이주사회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과 친척을 남한이나 해외로 이주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남북 사회 통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도 이들의 사회적응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여 진다. 개인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정체성 협상하기 위한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별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질화된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정체성이 어떻게 협상되고 있는지 개인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정체성 협상이 갖는 의미를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북한이탈여성의 사회·문화적 배경

북한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의 다변화되면서 자아정체성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가부장제사회에서 예측되어 있던 여성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념갈등이 고조되던 1980년대까지의 북한이탈주민의 성비는 남성이 90%였다(통일부 홈페이지). 그러나 사회경제 시스템이 무너진 1990년대 이후부터 해마다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의 80%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사회와 가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중심 사회라는 북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사회 활동참여

공산국가라고 부르는 북한의 사회주의는 유럽의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것은 주체사상과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개인숭배의 집단으로 발전되어온 세계에서 유일한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를 통치하던 김일성은 가장 먼저 봉건적 예속과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토지개혁(1946년3월)과 여성을 위한 남녀평등권법령(1946년 7월)을 발표하였다. 사회의 모든 분야와 생활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담보하고 여성의 자주성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여성문제의 본질은 일제식민지의 낡은 봉건적 제도를 없애고 인신의 예속과 불평등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것이라고 선전했다(전영선, 2017). 그러나 여성의 해방 목적은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이상적인 추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봉건적 제도로부터 여성을 해방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거대한 목표에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컸기 때문이다.

1950년대 전쟁 이후 전후복구를 위해 여성의 노동력은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절실했고, '남녀평등권' 주장은 더욱 강화되어 많은 여성이 산업화 추진을 위한 노동력 자원이 되었다. 이렇게 북한에서 여성은 '사회에 필요한 존재'이며,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힘 있는 역량'이라고 선전하며 사회의 주인으로 부각시켜왔다. 북한은 해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 근로인력은 여성을 중심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로 되어 있다. 그것은 고등학교 졸업 한 남성(17세)은 10년 동안 군대생활하기 때문에 김일성이 내놓은 남녀평등권은 국가의 노동력 확보에 필요한 정책이었다. 「사회주의 노동법」(제4조) '국민은 노동에 참가할 의무'와 '노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명시하고,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법 제59조에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노동보호를 제정하고 있으며, 「여성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여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남녀평등권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는 여성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노동력이며 가정 내에서도 부모, 남편,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임순희, 2006). 가족을 생산해 내는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의 책임과 같이 여성은 '가족 내에서', 남성은 '가정 밖에서' 라는 인식이 크다. 이와 같이 이중적 역할을 강요받고 있는 여성의 역할은 사회주의 혁명의 기수이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당연한 것'이라는 무의식이 존재하여 왔다.

2) 가부장적 사회·문화와 여성의 지위변화

「사회주의 헌법」(제77조)에서는 남녀평등권을 보장하고 여자도 남자와 똑 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제정하지만, 북한에서 여성의 삶은 독립적인 개체로서 평등하지 않았다. 실제로 ‘남녀평등권’을 주장했던 북한사회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녀불평등’한 사회라는 것이다. 가부장이란 단어의 의미대로 가족의 수장을 말하며 가부장제는 가족 수장이 가족들을 지배하는 체계를 뜻한다. 조옥나 외(1986)는 이러한 체계를 물리적 기반을 지닌 사회관계로 보았다. 즉, “동시에 여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남성들 간에 위계와 결속이 나타나는 일련의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의 사회체제 구조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남성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가족제도를 보면 결혼한 여성이 전업주부일 경우 가장인 남편을 통해 식량을 공급받게 되어 있다. 식량공급량은 남편이 700g(1일 기준)이면 가정주부 아내는 300g을 받는 가부장제 예측관계인 사회구조이다. 북한에서 가부장제는 국가와 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가부장제’는 수령유일체제로서 수령에게 가부장적 지위를 부여하고 가족이라는 정체성과 유대감을 강조하는 한편 ‘가족 가부장제’라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남성우월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편에게 예속되는 관계이다.

가정에서 여성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양육을 책임지며 직장생활에서 남자보다 낮은 지위에 머무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인은 가족이나 국가라는 집단 속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즉, 개인, 가족, 국가라는 유기체를 형성하며 가족과 국가의 이익이 서로 합치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박현선, 2003).

이러한 북한사회도 세대가 바뀌고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변화의 기점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시작되었고, 2000년대를 중심으로 기성세대들의 고정관념에 의존하지 않고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정부의 계획경제가 실종되면서 私경제가 중심이 되어 여성들의 역할이 급부상하게 되었다. 국영기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남성의 노동가치가 하락하고 남편으로부터 식량공급을 받아왔던 여성들이 시장경제에 뛰어들면서 私경제를 이끄는 여성들의 시장경제활동 영역이 넓어지게 되었고 여성의 노동가치가 급상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은 ‘복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1990년대에는 ‘경계의 삶’을 살아왔고 2000년대부터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여성들의 의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여성에 대한 정의는 현재 국내에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

탈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2. 문화적응과 정체성 협상

문화적응 또는 문화변용으로 혼용되고 있는 문화적응 연구는 초기에 특정 문화집단에 동화시키려는 동화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Reuter, 1917), 동화주의는 ‘결과’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193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Thurnwald(1932)는 ‘새로운 삶의 조건에 적응하는 과정’이 문화적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적응 현상은 집단 현상의 문화적응과 심리적 문화적응으로 구분하는데, 문화적 변화는 집단문화 변화를 말하며, 심리적 문화적응은 개인의 현상으로 보는 심리변화를 가리킨다(Graves, 1967; Berry, 1997). 집단현상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변화의 범위는 정치와 경제, 관습에 따라 생활이 변화되는 것이며, 심리적 변화의 범위는 문화정체성이나 개인의 태도, 행동 변화를 다루는 정체성이다.

이주가 확산되면서 정체성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어 확산되고 있다.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존재의 철학자 파르메니데이스와 ‘만물은 변한다’는 실재를 주장하는 헤라클레이토스, 니체(Nietzsche, 1980)의 논리에서 출발하게 된 정체성 개념은 정신분석학자인 에릭슨(Erikson, 1968)에 의해 철학적 영역을 넘어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에서 인간에 관한 모든 과학에 포괄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되었다. 정체성의 개념을 종합해 볼 때, 정체성이란 내적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로서 외부와 상호작용 과정에 변화하면서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복합적이고 상호 중첩되는 성격을 지닌다고 정의할 수 있다.

정체성은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경계를 만들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립하고 평가하고, 재평가하는 지속적인 동적 과정으로서 사회적 공간 변화와 함께 진화한다. 세계화시대의 이주의 특징은 과거보다 각 국가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한편, 다른 복합적 과정들과 연계되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에 들어서는 한국사회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정체성 협상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협상은 비즈니스를 가리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이지만 이주사회의 현상으로 1980년대부터 협상가능한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개인과 개인과의 만남이라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Goffman(1959)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된 정체성 협상은 상호작용을 협상과정으로 보았고(Weinstein & Deutschberger, 1964), 이를 개인

의 역할에 대한 접근법 토대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정체성과의 관계로 확대하여 오늘날 정체성 협상이론이 Swann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정체성 협상은 개인의 목표를 향해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는 갈등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교차지점을 정체성 협상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Swann, 1987).

즉, 정체성 협상이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성장배경을 가진 사람이 만나 상호작용을 할 때 개인이 지닌 정체성과 충돌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든 갈등을 조정하게 된다. 이때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협상의 동기로 작용하게 되며, 또한 협상의 핵심요소인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Swann(1987)은 정체성 협상에서 개인의 행동은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데 ‘개인의 목표, 개인의 아젠다,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우리는 사회라는 테두리 속에서 태어나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개인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타인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상황에 따라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검증을 통해 자기 개념 변화를 촉진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특성에 따라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집단현상으로 보는 정치와 경제, 관습을 다루는 사회적 변화보다는 심리적 변화에 초점을 둔 개인적 측면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여성이 정체성 협상을 위한 개인의 행동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 북한이탈여성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사회적 측면보다 먼저 개인의 심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정체성 협상과정을 살펴보기 위기 현상학적 사례연구를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언제나 생활세계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며 여러 경계를 가진 사례를 탐색하는 것이 사례연구이다(Creswell, 2007; 조흥식 외 역, 2010). 즉, 개인의 생활세계 경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이것이 갖는 본질적인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통해 체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현상과 시간의 경계에 따라 심층 분석하는 사례연구와 결합한 것이 현상학적 사례연구이다(송진아, 강경화, 2013).

이 연구방법은 북한이탈여성의 삶은 공간성(북한, 중국, 한국)과 시간성(과거와 현재)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 생활경험이 풍부하며 여기에 신체성(편견과 시선)과 관계성(상호작용)

까지 다양한 경험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협상하고 있는 경험의 본질을 밝히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현황

No.	북한에서의 직종	3국 체류 기간	정착기간	현재 경제활동
연구참여자 01	교육	1년	12년	유
연구참여자 02	교육	8년	11년	유
연구참여자 03	광산업	9년	12년	유
연구참여자 04	건설사업소	8년	12년	유
연구참여자 05	자영업	3개월	6년	유

연구참여자는 북한출신으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특성을 보면, 북한에서의 직업은 교육, 광산, 자영업이며, 중국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였지만 중국체류기간은 연구참여자 별로 차이가 있으며 현재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01와 연구참여자 02는 자식을 동반한 입국, 연구참여자 04는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반입국이며 연구참여자 05는 가족 모두 동반 입국이며, 연구참여자 03은 단독 입국이다. 그 외의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현황은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남한 정착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적응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 5년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사회정착 안정기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터뷰는 2017년 12월에서 2018년 2월까지 1차~2차, 시간은 60분~90분정도 소요되었고 인터뷰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근무하고 있는 현장이나 연구참여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편리를 보장하였다. 동시에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내용을 녹취하였고 이후 녹취자료를 문서화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연구하고자 하는 집단의 개인의 특성과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발견하는 중점을 두었다. 분석과정은 Colaizzi(1978)의 분석 주제에 따라 의미 있는 단위를 묶어 주제묶음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북한 언어의 특유한 표현이나 움직임도 포함하여 맥락 속에 숨겨진 의미까지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에 고민도 많았지만 북한이탈여성들의 경험 속에 본질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장중심의 나열기술방법을 적용하여 맥락 속에 숨긴 의미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IV.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심리적 변화에서 개인의 태도를 다루는 정체성이 협상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개인의 행동이 미치는 개인의 목표나 아젠다 그리고 개인의 삶을 담은 생애사를 포함하여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경험 사례를 살펴보았다.

1. 자기 가치부여

공간적 변화에 따라 개인의 행동에도 변화를 보인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북한 이탈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면서 자존감도 낮아졌다. 그러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속적인 변화 속에 스스로를 관찰하고 자기를 발견하며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경력단절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에서 10년 이상 직장 경험이 있음에도 이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직업과 남한에서의 직업이 많이 다르다 보니 직업교육훈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새로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의 경력과 연계지어 직업을 선택하려는 북한이탈주민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첫걸음을 내 딛는다. 이렇게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속적인 변화 속에 스스로 자신을 관찰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검증과정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행동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들이 대상을 인지하고 자기를 발견하기까지의 행동은 자기 관점에서 자기 세계관으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예측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본다(Swann, 2005).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재북시 북한에서의 직장경력은 남한에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자기발견과 자기 탐색을 위해 노력한다. 북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에 경력이 단절되고 북한에서의 직업과 연계한 직업이 별로 없다. 연계가 가능한 직업은 예체능과 관련된 분야이다. 북한은 문화정치이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북한의 문화정치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예술분야의 종사자들은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대부분이 다양한 북한음악예술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 밖의 북한 이탈여성들은 하나원을 나오면 브로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계형 취업으로 식당이나 슈퍼에서 아르바이트에 뛰어들다. 그러나 고등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교사출신인 연구참여자 02의 경우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었다. 연구참여자 02는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식당일을 해본 경험도 없고 요리에 대한 감흥이 없었다. 배우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자신이 배우면 된다는 생각에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자기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나원에서 진로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뭐하지, 아줌마들은 식당에 가서 다 일을 하는데 그쪽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하지? 내가, 진로 때문에 해마다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은 어떻게, 이런 설명회를 하는데, 난 모르니까 거기에도 찾아가서 공부하러 갔었어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갈팡질팡 한거죠. ... 2008년도 7월 1일이 대한민국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해예요. 나는 나오자마자 대한적십자사, 거기에 가서 40만원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았어요.” (연구참여자 02)

“일은 해야 되겠고 탈북자는 안받아준다고, 그렇다고 그냥 집에서 생계비만 타먹으면서 놀 수는 없고, 일하던 사람은 일을 해야 되요. 여러 곳을 다녔죠. 면접 보러 가셔도 어떤 사람은 약간 머리를 가웃 하거든요. 근데 난 ‘일에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참 고민하다가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04)

북한 경력으로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잠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경험한다. 그러나 자기가치를 확인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과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장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불안함을 보이지만, 심리적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둘째, 가치절하 평가에 나타난 인정욕구를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 01는 북한에서도 특유한 직업 경력을 가진다. 결혼 전에는 교직생활을 하다가 OO정치학교 지도원양성반을 졸업하고 OO고등중학교 청소년 사로청지도원을 하였고 결혼 후에는 OO시여맹위원장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01의 북한 직업경력은 남한에서 연계하여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안보활동이었지만, 이 활동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찾아 회사에 취직 하면서 새롭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인정받고자 심리적 변화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무엇인가 그런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일을… 인재로… 어떤 사회에서든지 내가 내 삶이 살아질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했던거예요. …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세계로 가자, 한국의 주류사회로 들어가자 라고 한 게 화장품 유통 업체였어요. … 나는 모든 것을 새로운 것으로, 그리고 젊은 집단이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피 땀어요. 그러다보니까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게 사회에 기여된다는 이런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싫어도 앞에서 티를 안내는 걸 그걸 몰랐던거예요.” (연구참여자 01)

진취성이 강한 성향을 지닌 연구참여자 01은 회사에 기여하고자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집단구성원들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났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며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리적 욕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가 타인에 의해 거절당하게 되면 자신도 타인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갈등과 충돌을 겪는 연구참여자 01의 경험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남한사회에 소속되고자하는 욕구와 소속된 집단을 기반으로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지해가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을 가치 있는 의미를 지닌 집단에 속한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Tajfel, 1972), 연구참여자가 겪는 갈등과 충돌은 자신을 동일한 남한사회 구성원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자기 인식에 따라 집단을 구별하는 자기범주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귀속 의식

귀속은 집단에 소속되는 것을 가리키지만, 귀속 의식은 그 집단의 목표와 가치체계 및 역할체계를 내재화하는 심리과정을 거친 결과로서의 의식구조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정체성에 대한 갈등은 믿음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된다. 누가 누구를 믿느냐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외부의 환경요인으로 갈등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갈등의 변화에는 북한이탈여성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귀속 의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적응과 그 단계를 벗어나 적응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위에서도 나타난다.

첫째, 초기적응 단계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동일 집단과의 거리두기 하며 홀로서기를 통해

주류사회에 귀속되어 동일성을 추구하려고 한다. 적응은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현상으로서 개인은 새로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요구한다. 강해성(2011)은 북한이탈여성에게 있어서 초기적응 단계는 자기실현을 위한 사고와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북한이탈 여성은 하나원을 나오면서 홀로서기 위해 동일집단과 거리두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이주근로자나 결혼이주민들과 달리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하루 빨리 주류사회에 섞여 평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저는 북한사람들 조직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끼리 있으면 마음 편한 것도 있지만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서로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살아서 공감대가 있다고 하지만은 거기에서도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수준이 너무 저기 한겨예요. … 나는 북한사람들이 있는 이 조직은 싫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왔으니까 여기 선진문화를 접하고 문명을 내가 빨리 배워야지 내가 여기서 답습하는 건 도움이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오라고 하는데, 나는 일부러 나는 한국회사에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냥 ‘내가 완전히 북한사람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세계로 가자, ‘한국의 주류 사회로 들어가자’라고 한 게, 화장품유통 업체였어요.” (연구참여자 01)

연구참여자 01은 남한사회 문화를 접하려면 남한의 조직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조직문화를 접하기 위해 자신의 동일 집단과 거리두기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01의 거리두기는 또 다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북한에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자존감에서 시작된다. 자신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했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권위적이었던 사회적 지위와 비교하며 북한이탈주민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지 않은 심리적 방어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여도 다 같은 급의 대학이 아니라며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의 자질과 능력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초기적응 단계에서 주류사회에 귀속되기 위한 거리두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① 주류집단 속으로 귀속되어 그들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심리가 작용하여 차별받지 않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01의 경우 동일성을 추구하려는 귀속의식과 동시에 남한의 선진문화를 비교하며 동일집단보다 자신의 우월함이 귀속되고자 하는 집단의 문화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소속된 집단과 가치체계를 내재화하려는 심리적 변화로 보인다.
- ② 정체성을 숨기로 남한친구를 사귀기인데 이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력을 얻기 위한 이정표를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출신은 남한에 입국하면 인맥이 없으며, 인맥이 없다는 것은 정보력도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화시대에 정보력은 정착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즉, 남한친구를 사귀는 것은 그만큼 정보력도 향상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 ③ 사회적 편견과 시선으로 인해 동일집단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심리적 행위이다. 이처럼 '북한'과 거리두기는 행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작용 접근을 시도한다.

둘째, 적응기에 들어서면 거리두기에서 벗어나 다시 동일집단과 연대하기 현상이 나타난다. 개인은 문화적으로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지만, 낯설고 생소한 문화적 환경에서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Ting Toomey, 2015). 개인과 조직이 서로의 목표를 향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개인과 조직은 협상하게 된다. 서로 다른 성장배경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체성이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충돌하는 정체성은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다.

연구참여자 01은 거리두기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하지만, 조직문화 갈등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 변화를 겪게 되면서 분리 현상이 나타났다. 개인의 가치와 조직의 문화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자신의 정체성의 의미 있는 측면들이 위태로워졌다고 느끼면서 다시 조직에서 벗어난다.

“나는 굉장히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서 피나게 노력하고... 내가 자기네들의 밥그릇을 차지할 사람으로 보는 거죠... 왜 저렇게 나대냐, 심지어 나이가 있다고 놀리기도 하고, 회사 일찍 출근하면, 주임님 나이엔 잠도 안 오죠? 이러면서 놀리고, 다 칼 퇴근, 칼 출근 그러는데 나는 일찍 출근하고 업무 파악하느라 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게 다 눈에 가시였죠. 동료라는 게 회사에 없고, 내가 외톨이라는 느낌인거죠. 그냥 현재도 나는

여기도 홀로구나 이걸 느끼면서 의욕이 갑자기 딱 떨어져 좌절이 되고, 뒤도 돌아보기 싫더라고요.” (연구참여자 01)

연구참여자 01은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서 결국 남한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있음을 알게 되고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희영 (2010)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북한이탈여성 OO씨는 열심히 공부하고 정착을 잘하면 남한사람이 되는 줄만 알았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은 북한사람이외는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었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성찰하면서 걸어온 생애체험을 통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한다.

마찬가지로 연구참여자 01은 초기적응단계에서 막연하게 열심히 살면 ‘한국인’이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주류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열정적인 보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탈남’을 선택하게 된다. 탈남의 이유는 자신이 겪는 차별과 편견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자녀에게 대물림하기 싫지 않아서라고 하였다.

“회사에서 하도 열받아가지고 늘 혼자라는 느낌이었어요... 주류사회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우리는 섞일 수 없는 물에 뜬 기름방울이구나, 이게 섞이지 않는 걸 알면서... 거기 가서도 한국 사람들과도 못 섞인다니깐요. 서로 앙숙이에요. 우리 북한사람들도 가서 보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때 묻는데, 바로 북한에서 3국에서 가다보니까, 한국의 자본주의를 전혀 접하지 않은 사람들, 완전히 오리지널 북한 사람들인 거예요. 훨씬 편하죠.” (연구참여자 01)

남북한사람들이 섞일 수 없다는 것을 국내와 영국에서도 체험하게 된 연구참여자 01은 남한에 다시 귀국한 후 주류사회에 섞이려는 재시도 보다 ‘북한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남북한이 상호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연대적 기반을 확보하고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사례 현상을 보면 일반화된 타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직면하는 상호인정의 부재가 북한이탈여성들이 일상적인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이희영 (2010)의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3. 주체적인 삶

북한이탈여성의 생애경험을 통해 희생과 헌신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그 과정을 보면 첫째, 자기 부정에서 벗어나기이다. 정체성의 주된 기능은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며 자기 존재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Shapiro, 2016). 연구참여자 05와 03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었던 북한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와 여성성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된다.

“북한은 여성을 한쪽의 수레바퀴라고 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자는 아니죠. 여기는 그래도 여자를 대통령까지 뽑는 나라인데, 북한은 여성이 대통령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니까” (연구참여자 05)

“자식,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여자로 태어난 것을 후회했어요. 왜 남자로 못 태어났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고생은 좀 덜 했어야 했는데… (손 모양)요만한 그릇에 딸랑 해서 남편만 딱 쌀밥을 해줘요. 그럼 애들에게는 죽을 줘요. 그 다음에 나는 나까지 먹자면 그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 남편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여자들이 맞벌이를 하면서도 직장에서도 집에 가정살림도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것은 나는 그 때 당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여기오니까 여기 사회는 여자다운 생활을 누리고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연구참여자 03)

국가와 가족을 위해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은 아름다운 것이라 미화했던 북한사회에서의 여성들의 삶을 돌아보며 남한사회에서 자신이 체험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여성의 이러한 의식변화는 남한사회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직접 체험하면서 여성성을 부정하던 자아정체성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즉, 정체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 패턴으로서 자기 인식에 따라 자신을 향한 자기 범주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강진웅(2013)은 북한이탈여성들의 정착은 부정되었던 여성으로서 자아정체성을 회복하는 새 삶의 출발점이며, 이러한 여성 자아 발견을 통해 '남한여성 되기'라는 동화과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연구자는 '남한여성 되기'보다 과거의 자신 삶을 돌아보며 속박과 의존 속에 살아야 했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숨겨진 자아와 억압된 자아를 새롭

게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알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 재협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이지만 독립적인 개체로 인지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여성들이 가정에서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새로운 삶’을 모색한다. 북한이탈여성의 이러한 심리변화를 북한이탈남성들도 잘 알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가족 내에서는 긴장을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이혼율이 높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남성우월주의인 북한사회에서 북한여성의 여권이 신장되면서 여성들이 삶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전략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살던 습관대로 남한에서도 남성상의 권위적인 모습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북한이탈여성은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려고 한다.

“(북한에서)없는 속에서도 별어서 남편 공대만은 최고로 해주었어요. 그렇게 살다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잘해도, 못해도 여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리고,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도, 자기가 잘못해도 여자가 저줘야 하고, 그저 몽땅 다 남자한테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와서 (내가)진짜 달라졌어요. 요구할 건 요구해요... 남편 성격도 (북한에서와 달리) 나한테 많이 맞춰주느라고 노력도 하고...그런 것을 (매형) 옆에서 보고, 그러는데, 지금은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자기가 청소도 좀 해주고 많이... 여기서 여자가 최고라는 것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달라졌어요. 그래서 형제들도 ‘야, 정말, 옛날에 자기 동생이 아니 구냐’, 막 이러면서 놀라거든요.” (연구참여자 05)

연구참여자 05는 30년 가까이 남편과 살다보니 기분에 따라 가장치기하는 남편의 모습이 익숙하기만 하였다. 그러다 이혼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이제는 나도 말할 수 있다’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불과 2년 전부터라고 한다. 남편도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돌변하는 모습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05는 문화적 공간이 다른 생활환경에서 자신의 삶은 다시는 북한에서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가정이 이주하면서 부부의 위계질서도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유지되었던 부부관계는 남한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변화가 생기면서 흔들리는 가족이 많다(조영아, 전우택, 2005). 여성에게 폭력적이었던 연구참여자 05의 남편은 여성을 지배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거침없이 가장치기 하던 행동이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에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존재했던 ‘나’,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위해 존재했던 ‘나’는 여성으로서 ‘희생과 헌신’은 당연하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볼 때, 가부장제 예측관계의 사회구조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서의 ‘나’를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남편에 예측되는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려는 행위는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정체성 협상의 동기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V. 결론

이 연구는 북한에서 여성들이 이주사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여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의 생활세계에서 출발하여 정체성 협상과정에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를 개인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여성에 관한 기존 연구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질화된 문화현상이나 가족생활, 자녀 양육과 교육 등을 중심으로 사회갈등 문제를 다루면서 정체성과 연계하여 개인의 현상으로 귀결시켰다. 즉 타자의 개입으로 동화 현상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문화적응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실현을 위한 삶의 도전으로서의 자기가치를 부여하고 가치절하 평가에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욕구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여성의 개인의 목표는 자아실현이다. 북한에서의 경력이 단절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불안함을 보이지만 자기가치를 발견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며 심리적 탄력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의 인식에 초점을 맞춘 자아검증으로 모델로서 정체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행동 패턴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추구하고자 하는 아젠다는 귀속의식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여성들이 적응을 위해 거리두기와 연대하기를 통해 구성 집단의 목표와 가치를 내재화하는 심리과정을 거친 의식구조가 존재한다. 자기가치 인정욕구는 다른 사람의 인식에 초점을 두었다면, 거리두기와 연대하기는 자신의 관점에서 변화를 시작한다. 이 두 과정은 상호 연결되지만 인식과 행동을 향하는 패턴은 ‘너’와 ‘나’로 분리되고 있다.

셋째, 생애 경험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찾으며 독립적인 개체로 인식이 변화한다. 이는 자아 인식에 따라 자신을 향한 자기범주화과정으로 보여주는 행동 패턴이다. 북한이탈여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부정되었던 자아가 회복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속박과 의존 속에 억압되었던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생애 경험을 통해 희생과 헌신이 아닌 독립적인 개체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서 남편에

의존적이던 사회·문화적 배경과 남한에서 남편에 의존적이지 않아도 되는 사회·문화를 볼 때, 행위자는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인지하는 심리적 변화를 통해 정체성을 재협상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북한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공간적 이주를 통해 주류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협상되는 과정을 개인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북한사회체제 속에 묻혀 드러낼 수 없었던 자신과 국가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자아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 가치를 부여하고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려는 인정욕구도 발견되지만 이 과정에서 충돌과 갈등을 겪으면서 협상을 시도하는 다양한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여성들의 변화하는 사례를 통해 북한사회에 대한 북한 여성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면서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사회문화를 통해 개인의 삶의 변화도 볼 수 있다. 둘째,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재된 심리적 갈등을 어떻게 협상하는지를 살펴봄으로서 남북사회통합을 위한 남북주민의 갈등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북한이탈여성들의 생활세계를 통해 북한사회 변화를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진웅. (2013). 이산 속의 북한여성: 하위주체로서의 여성의 삶과 정체성의 정치. 『아세아연구』, 152: 260-292.
- 김윤나·주경필. (2017). 출신성분에 따른 북한여성의 문화적응 기제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8(2): 329-338.
- 김현실.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32: 39-70.
- 박현선. (2003). 『현대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 심양섭. (2016). 탈북여성의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연구. 『북한학보』, 41(2): 61-107.
- 임순희. (2006). 『소설을 통해 본 북한 여성의 삶: 자아인식, 삶의 목표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엮음, 북한의 여성과 가족, 169-200. 서울: 경인문화사.
- 장정은. (2015). 북한이탈여성의 청소년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구. 『사회복지연구』, 46(4): 375-419.
- 전영선. (2017). 『북한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슈퍼면, 혹은 꽃으로 호명되는 북한의 여성』. 서울: 경진.
- 정창현. (2005).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 서울: 선인.
- 조옥나·장상·이효재·이문웅. (1986). 가부장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학』, 2: 9-49
- 조영아·전우택. (2005). 탈북여성들의 남한 사회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0(1): 17-35.
- 최정호·최희. (2017). 『인천시 북한이탈여성 취업지원 방안』.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 최희·강현민. (2016). 탈북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8(3): 89-99.
- 최희·김영순·윤현희. (2016). 탈북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에 관한 정책연구학교 교사의 경험. 『열린교육연구』, 24(1): 1-21.
- 한미라. (2015). 탈북여성의 초국적 어머니 경험. 『다문화와 평화』, 9(2): 160-178.
- 홍승아. (2013). 가족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제: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 25(2): 173-205.
-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unibook.unikorea.go.kr
-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Norton.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Anchor Doubleday. Garden City, New York, NY.
- Graves, T. D. (1967). Psychological acculturation in a tri-ethnic community.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23(4), 337-350.
- Nietzsche, F. (1980). *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 Hrsg. von Giorgio Colli und Mazzino Montinari. Berlin / New York.
- Shapiro, D. L. (2016). *Negotiating the Nonnegotiable*. New York. 이진원 역(2017). 『불가능한 협상은 없다』. 서울: 까치글방.
- Swann, W. B. (2005). The Self and Identity Negotiation. *Interaction Studies*, 6(1), 69-83.
- Swann, W. B. (1987). Identity negotiation: Where two roads me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038-1051.
- Tajfel, H. (1972). Social Categorization (English Translation of 'La Catégorisation sociale'). In S. Moscovici (Ed.), *Introduction à la psychologie sociale*, vol. 1: 272-302.
- Weinstein, E. A., & Deutschberger, P. (1964). Tasks, bargains, and identities in social interaction. *Social Forces*, 42(4), 451-456.
- Reuter, E. B. (1917). The superiority of the mulatto.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23(1), 83-106.
- Thurnwald, R. (1932). The psycholog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4(4), 557-569.

Abstract

Identity Negotiation Appearing in North Korean Defector Women' Cultural Adaptation: Focusing on Individual Aspects

Hee Choi & Youngsoon Kim

This study began with the need for social integration related with North Korean Defector Women, in that they initiat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Defector society. It, therefore, aims to examine how individual identity is negotiated along with heterogeneous socio-cultural changes caused by the spatial mi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in terms of individuals, and clarify its meaning. To this end, it collected and analyzed from five North Korean Defector Women, by selecting them as the subjects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them. The findings as follows: First, individuals' goals as life challenges for self-realization represent the desires to give self-esteem to themselves and to be recognized, though they are devaluated. Second, the agenda that North Korean Defector Womens pursue is belongingness. Although there is the structure of consciousness, which undergo psychological processes containing goals and values of groups, while distancing and consolidating through adaptation, it is also the change beginning from one's own perspective. Third, they show self-denial and self-recovery through life experiences and change their perceptions on themselves as independent individuals. This study suggests that a keen insight is required to see through the North Korean society, based on the life world of North Korean Defector Womens who try spatial changes as well as the differentiation from the past self and discover 'self' from their unconsciousness.

*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Women, Personal Aspects, Identity Negotiation, Cultural Adaptation, Identity

투고일: 2020.3.11 / 심사일: 2020.3.24 / 게재확정일: 2020.4.21